

오늘의 기사판

광주일보 투데이 면이 새롭게 독자 들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읽을거리로 꾸며지는 '투데이'면에는 매일 매일 광주전남 지역에 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자세히 소개하 는 '오늘의 기사판' 코너가 선보입니다. 또 역사 속의 사건·사고 인물들을 만나 보는 '오늘의 소사'와 '바둑 단신' 코너 도 신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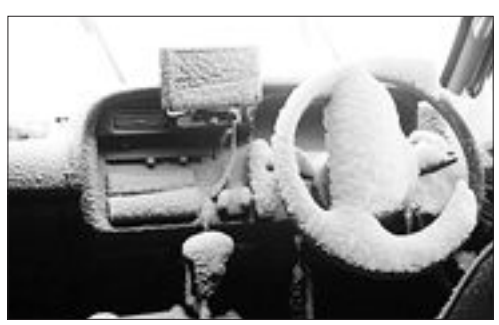
행사 ▲조선대 겨울방학 지능형 로봇 캠프=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조선 대 전자정보공과대학 정보제어계측공학과 607호, 초중고 대상, 미리 준비된 로봇 제작 도구로 직접 레이스봇(race bot)을 만든 뒤 완성된 레이스봇 으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해보는 시간을 갖는 다. 오전반(9시~오후1시)과 오후반(오후2시~6 시)으로 나눠 각 반 20명씩 진행. 참가비는 지능형 로봇 대여료 1만원. 접수는 arcs.chosun.ac.kr. ▲청소년 국악 문화학교=6일까지 오전10시~ 오후1시 국립남도국악원 061-540-4011

전시 ▲광주 한국화 실사회전 '자연으로 의 여행스케치'=6일까지 메트로 갤러 리, 문의 (062-226-8056) ▲'행은 담은 강이치 11박사-病成年賀展'=5일 까지 신세계 갤러리, (062-360-1630) ▲남도미술 100년 그 뿌리를 찾아=2월19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062)525-0968

역사속 오늘 ▲중국, 세계최초로 자기부상열차 시범운행에 성 공(2003) ▲중국-대만 직항로 52년 만에 개설(2001) ▲미국 언어학자 한스 쿠르트 사망(1992) ▲드골 프랑스 대통령 독자적 핵군(핵무기 관련 군대)창설 선언(1963) ▲영국 첫 원자력잠수함 건조(1959) ▲최초의 달 탐사선 루나 1호 발사(1959) ▲민정당 발기(1956) ▲간행물 사전검열제 시작(1951) ▲공산당, 신라특지 지지선언(1946) ▲일본군, 마닐라 점령(1942)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생화학자 아이작 아 시모프 탄생(1920)



복제인간 셀카 놀이



차 지붕이 썩나

함께 풀어봅시다 < 1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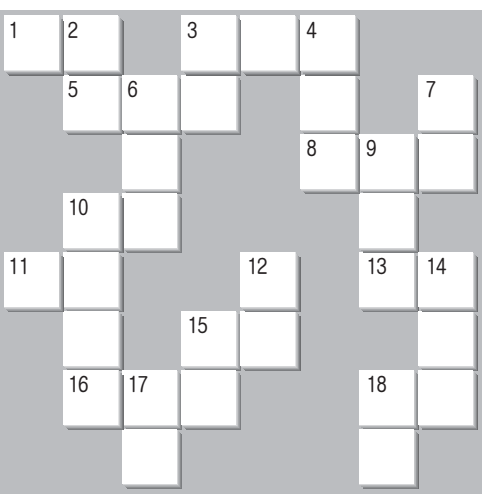
가로풀이

1.규칙을 정해 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를 뜻하 는 외래어.→경기,놀이. 여럿이 모여서 컴퓨터 ~ 에 몰두하다. 3.관청,회사,단체 등의 간관을 처음 으로 거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이르는 말. 5.은 행이 수입업자 외래어에 따라 그 회사를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L/C. 8. 농작물을 거두어들 인 양. 올해는 가뭄으로 벼 ~이 크게 줄었다. 10.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 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과 구별 된다. 11.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잴. 또는 기계나 장치를 이용해 재기도 한다. 음주~. 13.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을 다지다. 그는 서울에 온 지 10년 만에야

생활의 ~을 잡았다. 15.동물이 어떤 곳에 깃들여 사는 일. 이곳을 날다람쥐가 ~하는 곳이다. 16.테 니스,탁구,배구 등에서 상대편이 처음 넘긴 공을 받아 넘기는 일을 뜻하는 외래어. 18.웃이나 물건 등을 입거나 꾸러서 갖춘 상태. 그는 간편한 ~로 여행을 떠났다.

세로풀이

2.아이를 뱀.→임태,회임. 그녀는 현재 ~ 3개월 임니다. 3.사물이 현재 있는 곳. 또는 일이 생긴 그 자리. 경찰이 사고 ~를 수사하고 있다. 그는 ~경 현이 풍부하다. 4.사람의 체액과 삼투압을 같게 한 소금물. 6.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된다.→건폐율. 7.기술상의 재주. 그는 철치부심해 수 년간 자신의 ~를 연마했다. 9.소리를 크게 하



함께 풀어봅시다 181회 정답

넘기는 일을 의미하는 외래어. 17.시(市)에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또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 사람. ~ 의식을 부여야 한다. 18.부기나 회계에서 계정계좌의 왼쪽, 자산의 증가,부채 또 는 자본의 감소 등의 발생을 기입하는 부분.→대 변.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 주일보사 여론매체부

2005 바둑마스터스 삼국지 초반 '난전' 본선 8국 제 2보 (15~30) Go board diagram showing a Go game position.

白 최철한 (9단) <타이젼> 김주호 6단이 즉각 흑 15로 백 16의 끊음을 추궁해간 것은 당연했으며 바력이 넓 치는 수였다. 거꾸로 백이 '가'에 두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 다. 백이 16으로 은인자중하 며 참은 것은 어쩔 수 없고 흑 17이 또 강경한 수다. 이 수로는 '나'에 지키는 것이 보통이며 무난한 편이다. 그러나 상대가 강자 중의 강자이니 만큼 김주호 6단도 보통의 수로는 상대하기 가 쉽지 않다고 보고 허술하더라도 노림을

黑 김주호 (6단) <M개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싸움꾼인 최철한 9단이 백 18로 싸움을 걸어오자 지고 싶지 않은 김 6 단도 거꾸로 노리던 19의 곳에 쳐들어가 조 장부터 난전이 벌어졌다. 천하의 최 9단도 견디지 못하고 백 30으로 연결해 갈 수밖에 없다. 흑의 강수가 성공했 다는 신호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바둑단신 박영훈 9단 바둑리그 MVP 박영훈 9단이 지난달 27일 프라자호 텔에서 열린 2005 한국바둑리그 시상 식에서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신성건설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박영 훈 9단은 이날 발표된 기자단 투표 결 과 79%를 득표했고 네티즌 투표에서 100%의 지지를 얻어 최철한 9단을 따 돌리고 MVP가 됐다. <수상자 명단> ▲MVP = 박영훈 9 단(신성건설) ▲대상상 = 박영훈 9단 ▲베스트주장 = 박영훈 9단 ▲베스트 2장 = 조한승 8단(넷마블) ▲베스트3 장 = 이정구 4단(넷마블) ▲베스트4장 = 이정우 5단(한게임) ▲대상상 = 안조 영 9단(보해) ▲감투상 = 진풍규 2단 (보해) ▲최고시청률상 = 서봉수 9단 (한게임), 루이 나이웨이 9단(보해)

굿모닝 잉글리쉬 <554> Can you direct me to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이죠? A: Excuse me. Can you direct me to the toy department, please? B: It's on the 7th floor. As you get off the elevator, you'll see it on your left. A: Can you direct me to the elevator? B: Go straight ahead and you'll walk into it. A: Thank you B: You're welcome. A: 실례합니다. 완구 판매장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B: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왼쪽에 있습니다. A: 엘리베이터는 어느 쪽이죠? B: 곧바로 가시면 됩니다. A: 감사합니다. B: 천만에요.

오하이오 니혼고 <554> 日本人の名字(みょうじ)は 일본인의 성씨(姓氏)는 A: 日本人の名字(みょうじ)は10万を越(こ)えると言われているんだけど、韓國人の名字はいくつあるの? B: そうだね、250ぐらいかな? でも少しずつ増えているみたいだよ. A: どうして? B: 外國人が韓國人に歸化(きか)したとき、自分(じぶん)の持っていた名字をそのまま韓國の名 字として申請(しんせい)するからだって. A: 일본인의 성씨(姓氏)는 10만을 넘는다고 하던데, B: 한국인의 성씨는 몇 개 되는 거야? A: 글썽, 250정도일까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B: 어째서? A: 외국인인 한국인으로 귀화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姓)을 그대로 한국의 성으로서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해.

니하오 쑹구위 <303> 蕪勁凡 수준이하다, 인품이 떨어지다 A: 你怎么不在这几个餐厅吃饭了? B: 我最近忙得没空吃饭. C: 那凡的服务员太差劲了. A: 她怎么了? B: 她最近忙得没空吃饭. C: 那凡的服务员太差劲了. A: 她怎么了? B: 她最近忙得没空吃饭. C: 那凡的服务员太差劲了.

한자 이야기 <173>元旦(원단) 으뜸 원, 아침 단 원단(元旦)은 양력(陽曆) 1월 1일이다. 우리는 구정(舊正)인 음력(陰曆) 1월 1일을 설날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양력 1월 1일은 흔히 신정(新正)이라고도 부른다. 원(元)은 원(元) 위에 점(●) 표시를 덧붙여 사람의 둥근 머리를 나타내고, 나가 '처음'을 의미한다. 단(旦)은 일(日)+충선(-: 지평선)으로, 태양이 지상에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연하장(年賀狀)에는 새해 축하인사로 근하신년(謹賀新年) 또는 공하신년(恭賀新年)이라는 문구를 흔히 사용한다. '삼가 새해를 축하 한다'는 의미로 '해피 뉴이어(Happy New Year)'와 같은 용례라고 할 수 있다. 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송구영신(送舊迎新)',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전하는 '영춘(迎春)' 등도 자주 접하는 한자어가 들린다. 그런데 일단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외친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새 해를 맞이하여 축하드립니다(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せう)'는 규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물개성적이라고 생각된다. 올해는 좀더 개성적인 새해인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의 시 물속 풍경 김인환 깊은숨 들이마신 다음 물 속으로 자택질해 보았지 눈 부릅뜨고 물 속 풍경을 보았지 자갈을 간질이는 모래무지 꼬리지느러미로 사알삼 물살에 모래를 끼얹는 것을 냇물 속으로 참방참방 뛰어들어오는 열다섯 살 빛살무늬 햇살 자잘한 각시붕어와 피라미들이 내 새끼발가락을 깨물다가 환한 햇살을 뽀글뽀글 받아 읽는 소리 들렸지 자갈과 자갈을 두 손으로 맞부딪치면 끈질긴 듯 울리는 은은한 목탁소리 햇빛이 물속에서 허리를 꺾듯이 소리로 물속에서 키를 낮추어 물길 따라 실타래로 흘러가고 있었지. 빙글빙글 새해를 맞아 시 인이 바라보는 이 물 속 풍 경 같이만 세상이 평화로 기를 기도한다. "햇빛이 물 속에서 허리를 꺾듯이/ 소리로 물속에서 키를 낮 추"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 려게 자신의 허리를 공쳐 립 등글게 꺾을 수 있는 데 까지 꺾고, 키를 낮출 수 있는 때까지 낮추며 살아 간다면 얼마나 좋으랴. 세 상 풍경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시에서처럼 물 속 풍경 같기만 하여라. 허형만 hhhmpoet@daum.ne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3일 辛卯) 36년생 아내와 뜻이 맞고 생각이 살아나다. 48년생 주변에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오는 형상이다. 60년생 김사와 연결될 모습이다. 72년생 흥은 가고 김사가 도래 한다. 84년생 새로운 직업이 생기니 홀로서 기를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2 40 37년생 아는 도끼에 발동 찍힐 우려가 있다. 49년생 바빴이 일 수도 있으나 중정하라. 61년생 자기생활에 만족을 얻고 바른 생활을 하 라. 73년생 풍류에 어울려 허송세월을 할 수도. 85년생 원거리 여행 은 삼가라. 행운의 숫자 : 02 36 38년생 형제, 배우자편에 불만사가 발생할 수도. 50년생 소사에 시 비 망인 연영이 발생할 수 있다. 62년생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74년생 우연으로 김사와 연결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27 39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니 재계토해할 필 요가 있다. 51년생 주변의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우려가 있으니 적극 참여를 조심하라. 63년생 건강에 유념하라. 75년생 남의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4 35 40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등 가내에 경사가 있다. 52년생 가 까운 주변으로 손재 실물 소비가 있다. 6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 중에 신중 하라. 76년생 협조자는 업는 듯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앞뒤를 살피라. 행운의 숫자 : 08 26 41년생 소사의 연쟁이 부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 53년생 모든 일 즐겁게 시작한다. 66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77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뒤돌아 보고 모든 것 은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05 27 42년생 쇠락한 길목에서 피곤이 증해질까 두렵다. 54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를 찾아 몸으로 현신하라. 66년생 희망한 설계를 구성 했으니 모든 일이 순행 하리라. 78년생 액정을 휘말릴 수 있으니 자 재 하라. 행운의 숫자 : 13 45 43년생 좋은 계획은 좋은 인연을 만드니. 55년생 금하게 서투를 필 요는 없다. 67년생 임종의 사기에 영길 수 있으니 신중 하라. 79년생 주변의 협조자가 생기니 참여는 피하고 선결후흥으로 불만이 가중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33 44년생 변동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56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화해하라. 68년생 자신의 불 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소한 길목 에서 결정이 어렵다. 행운의 숫자 : 19 25 45년생 흥이 북이 된다. 57년생 북이 흥이 될 수도 있으나 매사에 심 사숙고하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라. 69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 적인 내용에 신경을 쓰라. 81년생 좋은 친구와 좀더 시간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7 26 46년생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58년생 잃었던 주인을 찾는 입장이다. 70년생 걸 다르고 속 다름 주변인물로 인해 골치 아픈 일 이 발생할 수도. 82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심도 험하게 할 때. 행운의 숫자 : 15 37 47년생 새로운 문서와 재물이 신성된다. 59년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71년생 협조할 사람이 결국은 괴롭혀 오는 형상으로 마가 때를 수도 있으니 신중 하라. 83년생 형제 수하인도 인해 불 편사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29